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하루 한 알로... 살 빼는 시대 열렸다

세계 첫 경구형 ‘위고비’ 美 승인
새해 초 선별 듯... 국내는 하반기
투약 64주 차에 체중 16.6% 감량
릴리 ‘오폴글리프론’도 곧 출시
‘먹는 비만약’ 경쟁 본격화 예고

하루 한알 경구로 복용하는 비만치료제 경쟁이 내년 초부터 펼쳐진다. 주사제 중심의 시장이 경구치료제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국내 출시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글로벌제약업체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GLP-1 수용체 작용제(RA) 계열의 첫 경구 비만치료제 위고비 정(세마글루티드 25mg)이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미국 시장내 출시는 내년 1월 초 예정됐다.

주사제형 대비 하루 한알 복용하는 편리한 복용 방법으로 비만환자들에게 추가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위고비 정은 앞서 출시된 주사제형인 위고비와 동일 성분으로 경구 복용에 따른 낮은 체내 흡수율을 고려해 성분의 함량을 높인 제품이다. 동일 성분으로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은 리벨서스의 14mg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용량이 많은 제품이다.

승인은 4건의 OASIS 임상프로그램과 SELECT 등 5건의 3상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한다. OASIS4 임상 결과 투약 64주 차에 환자가 용법대로 약물을 모두 복용



李대통령, 옛 지역구 계양수녀원 방문

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성탄절인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틀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

연합뉴스

했을 때 체중 감량은 평균 16.6%로 위약군 2.7% 대비 높은 효과를 제시했다. 또 위고비 정 투약군 34.4%는 20% 이상 체중 감량을 보였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정 대항마인 릴리의 오폴글리프론 역시 내년 1분기중 출시가 유력하다.

릴리는 18일 자사의 경구 GLP-1RA 후보 오폴글리프론에 대한 FDA 승인신청 소식을 전했다. 오폴글리프론은 앞선 11월 6일 FDA로부터 10~12개월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국가 우선 승인 바우처를 확보, 내년 1~2월 사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승인신청은 3건의 ATTAIN 3상 임상 프로그램이 기반이다. 오폴글리프론 투약 72주 차에 평균 12.4%의 체중 감량효과를 보인 반면에 위약군은 0.9%에 그쳤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젠타온드) 등 주사제 투약을 받은 환자가 오폴글리프론으로 투약을 변경했을때 추가적인 감량 이점이 유지됐다.

비만 치료를 위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릴리 마운자로 간의 주사제형 경쟁은 내년 경구제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추 3상에 한국이 포함되었던 만큼 국내 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고비와 오폴글리프론 경구 비만 옵션 간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직접 비교임상이 이뤄지지 않아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위고비의 경우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한다. 반면 공복 때 다른 음료를 피해 물과 함께 복용한 후 30분간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이 낮다.

반편 오폴글리프론은 임상 결과에서 감량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난 대신 복용시 금기사항은 덜하다. FDA 승인 시 확인 가능한 사안이나 복용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동·성북·강북·마포 등 7개구
실수요자 보호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가 신통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성 거래 차단에 나섰다.

시는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각 1곳과 금천구 2곳 등 총 8곳 구역이다.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신사동 일대, 마포구 신수동 일대, 금천구 독산동 2곳,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다.

전체 면적은 43만5846㎡로 지정 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와 동일한 만료 시점을 적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허가구역에 대한 조정과 해제도 병행했다.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신통

신통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총 43만5846㎡



지정 기간: 2026년 1월 7일~2027년 1월 28일

1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2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3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5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6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
7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8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자료=서울시

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와 오류동 4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반면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는 지정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인 내년 1월 2일부터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민주 ‘통일교’ 특검 반격에 국힘, 주춤

권성동 재판 이어 나경원 의혹
내부 악재 줄이자 발빠기 모드
사법부 특검 추천 등 지연 꼼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놓고 주춤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교유착’ 의혹 전면에 맞추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때문이다. 당초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들 간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겨냥했던 국민의힘에서 당측합이 역력하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나경원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의혹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등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당 전당대회와 시도당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과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쟁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하자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사실은 슬로우 트랙이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

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3차 추천을 거론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며 일갈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신 사법부를 제외한 제3자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외부의 전문기관들인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쪽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패스트트랙’ 주장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최장 330일 정도 걸리는 매우 오래 걸리는 사안”이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2면에 계속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망세희 지음

화제의
신간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58세 신예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펠로고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망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